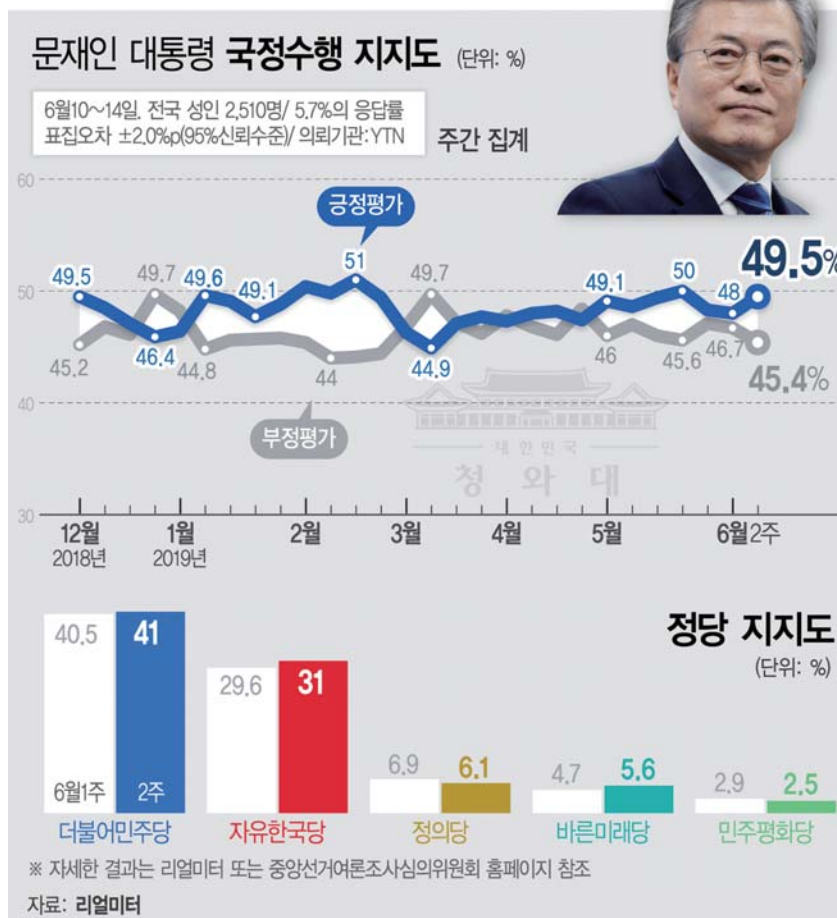


文 지지율, ‘평화 메시지’로 50% 근접

전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49.5%...공정과 부정 오차 4.1%p로 벌어져
민주·정의·평화 등 범여권 지지층 및 무당층 결집...진보·중도 상승



북유럽 순방에서 잇따라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신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동안의 완만한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해 50% 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6월 2주차

(10~14일)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49.5%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1.3%포인트 내린 45.4%(매우 잘못된 32%, 잘못하는 편 13.4%)로 집계됐다. 공·부정 평

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포인트) 박인 4.1%포인트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0.2%포인트 감소한 5.1%였다.

이번 반등세는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기간 4차 남북정상회담,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메시지를 거침없이 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故) 이희호 여사에게 조 의문과 조화를 전달함에 따라 재부각된 남북관계 이슈 영향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반등세에 대해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의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 한·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및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개설 합의, 스웨덴 제약사 투자 유치 등 북유럽 순방 외교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추모 조의문과 조화 전달, 문 대통령의 6월 중 남북정상회담 가능” 관련 보도에 따른 영향도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정의당·평화당 등 범여권 지지층과 무당층,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20대와 60대 이상 40대에서 상승한 반면, 바른미래당 지지층, 호남과 충청권, 30대에서는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46.3%→60.1%, 부정평가 46.3%), 부산·울산·경남

(41.6%→44.4%, 부정평가 50.0%), 경기·인천(51.2%→63.3%, 부정평가 43.0%)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72.1%→66.6%, 부정평가 26.6%)와 대전·세종·충청(44.5%→42.2%, 부정평가 47.3%)에선 내렸다.

연령별로는 20대(41.2%→49.2%, 부정평가 39.5%), 60대 이상(36.6%→38.4%, 부정평가 56.0%), 40대(60.6%→62.0%, 부정평가 35.0%)에서 상승했다. 30대(59.7%→55.7%, 부정평가 41.2%)에선 하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평화당 지지층(55.9%→64.7%, 부정평가 35.3%), 정의당 지지층(65.9%→74.2%, 부정평가 23.8%), 무당층(21.5%→27.1%, 부정평가 53.1%), 민주당 지지층(87.5%→89.0%, 부정평가 7.3%)에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바른미래당 지지층(31.0%→24.3%, 부정평가 71.8%)에서는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4.7%→76.7%, 부정평가 20.2%)과 중도층(48.1%→49.8%, 부정평가 45.7%)에서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4만3768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해 5.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반골’ 윤석열, 검찰 개혁 순응할까

文대통령, 검찰총장에 지명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낙점됐다.

현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과는 연수원 다섯 기수나 차이가 나며,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고검장급을 거치지 않은 지검장급 발탁은 처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13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4명이 추천된 지 나흘만이다.

윤 후보자는 자신보다 섰배인 연수원 19~20기의 다른 3명을 제치고 전격 지명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찰 기수 문화를 파괴하고 검찰 내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을 때도 파격 중의 파격으로 평가됐다.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해오며 청와대의 신임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에 또다시 윤 후보자가 2년여만에 검찰 수장에 파격적으로 지명되면서,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차기 검찰총장의 핵심 과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관련 현안이 손꼽혀왔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돼있어 신임 총장이 취임한 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

이다.

또 최근 검찰이 현 수사권 조정안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조직을 추스리고 향후 검찰 개혁을 함께 추진할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청와대가 이날 윤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를 완수할 책임자로 봤다는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주요 수사를 지휘하면서 수사권 조정 등 검찰 현안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적은 없다.

하지만 윤 후보자가 현 정부의 검찰 쇄신 표본으로 여겨지는 만큼 검찰개혁과 조직쇄신에 있어 정부의 추진 방향에 힘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반면 검찰 내 대표적 ‘강골’ 검사로 꼽히며 과거 검찰 수뇌부와 충돌한 전례도 있어 소신에 어긋날 경우 정부와의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있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무회의의 결을 거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최종 임명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1960년 서울 출생 ▲충암고·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 ▲대구지검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광주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논산지청 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 과장 ▲대검찰청 중수1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 지청장 ▲대구고검 검사 ▲대전고검 검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 팀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선교, 돌연 한국당 사무총장직 사퇴

황교안 “건강상 이유”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사무총장직을 사퇴했다. 연이은 막말 논란이 또 다른 사퇴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건강상 이유’라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본인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사퇴의) 뜻을 표했다. 논의를 좀 많이 했는데 본인의 뜻이 분명해서 이를 수용했다”라고 전했다.

기자들이 사퇴의 뜻을 밝힐 때 막말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

지 묻자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답했다.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쯤인지 묻자 “자세히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지난주부터 얘기가 있었다”라고만 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막말 논란으로 비판받았다. 그는 지난달 7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회의 중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XXXX야, X같은 XX야, 꺼져” 등의 욕을 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지난 3일에는 복도에 있던 기자들에게 “결례질한다”라고 발언하면서 또 한번 막말로 비판을 받았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친박 홍문종’ 애국당 공동대표로 만장일치

탈당절차 마치는대로 친박 세력 결집 본격화할 듯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원진 대표와 함께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로 추진됐다.

조원진 애국당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의원이 참석 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공동대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탈당을 공식 선언하고 조 대표와 애국당 공동대표로 추대된 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은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애국당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이제 애국 시민과 함께,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당을 깨우치겠다”고 말했다.

애국당은 홍 의원이 한국당 탈당 절차를 마치는 대로 당명을 ‘신(新)



공화당’으로 바꿔 친박 세력 결집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홍 의원의 탈당 선언에 대해 “자유우파가 다 함께 뭉쳐야 하는데 분열은 국민들이 원하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은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